

# Relations between The Elderly's Transfer Incomes and Life Satisfaction

Hyoung-Ha Lee\*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sing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private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1,019,200 won (monthly average 849,000 w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n effect to stabilize the income, which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found to be 5,080,500 won (monthly average 424,000 won), half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 elderly of low income househol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s the "uncomfortable" income source, fills up the unstable income stabilization gap and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by supplementing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an irrational part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enabl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plans for the transfer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the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 Keyword: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private transfer, life satisfaction, Korea welfare panel study

## I. Introduction

우리나라에서 공적 이전(public transfer)과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한국사회는 한편으로 민주화 이후의 과업으로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결실을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진전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국가적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국가보다는 민간 혹은 시장의 역동성을 재고시켜야 하는 경제적 요구가 동시에 존재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고령화 문제는 고령화될수록, 고령층의 빈곤위험과 더불어 소득불평등 현상 또한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적연금의 미성숙과 공공부조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공적 이전이 미흡하고, 산업화 사회와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책임주의가 후퇴하면서 사적 이전 또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2, 3, 4].

---

• First Author: Hyoung-Ha Lee,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Hyoung-Ha Lee (hhlee62@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8. 08. 27, Revised: 2018. 09. 25, Accepted: 2018. 09. 28.  
• This paper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I18-068.  
• This paper is an extension and revision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Summer Conference of the Korea society Computer and Information Association in 2018.

2014년 노인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가구소득액은 2008년 1,687.2만에서 2014년 1,943.8만원으로 36.7% 증가하였다. 노년기 소득원별 소득비중은 2008년에는 사적 이전이 44.7%, 공적 이전은 25.5%로 두 번째, 근로 및 사업소득은 22.6%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던 반면[5], 2014년 조사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52.8%로 첫 번째, 공적 이전은 22.6%로 두 번째, 사적 이전은 15.1%로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다[6, 7]. 이러한 소득원별 변화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은퇴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으며,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합해도 37.7%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4년과 비교해 공적 이전이 2.9% 감소한 반면, 사적 이전은 29.6%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않은 공적 이전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사적 이전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게 된다. 결국 노인들이 소득원천의 질적인 변화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다루는 선행연구로는, 첫째, 공적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소득을 얼마나 구축(공적 이전소득 증가가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효과)하나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강성호, 최옥금(2011)은 중위소득 및 고소득가구에서 빠른 속도로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8], 그 중에서도 중위소득층에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사이에 완전구축이 발생한다고 보았다[9]. 둘째, 노인의 소득원별 소득비중의 변화와 관련한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7, 10, 11]는 정책의 효과성(노인 빈곤율 감소, 소득불평등도 변화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셋째,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공적연금의 영향력만을 연구[7, 10]하거나,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12]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의 소득수준을 반영한 일반 노인가구와 저소득 노인가구의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을 규명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2016) 데이터[13]를 활용하여 한국노인의 이전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OECD(2013)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0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47.2%로 나타났다[14]. 이처럼 경제적 수준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15]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등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16]. 또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단계로 아직은 노인의 소득안정화에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사적 이전에 대한 의존정도가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들의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개인특성 요인들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공적 이전은 주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급여(공적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초보장급여, 맞춤형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타정부보조금(장애수당+기초연금+보육료지원+근로장려세제 등)을 말한다. 사적 이전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보험, 퇴직연금, 기타 민간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사적 이전은 동기에 따라 공적 이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17], 이에 따라 사적 이전소득의 동기를 이해할수록 보다 의미 있는 소득재분배 관련 공공정책의 설계가 가능하기에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적 이전동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타주의(altruism)와 교환주의(exchange) 이론이다. 전자는 사적이전의 제공자가 이타주의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전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사적 이전의 제공자가 이전의 대가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에 의해 이전을 행한다고 주장한다[9].

강형민(2016)은 저소득층가구와 공적 이전소득 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저소득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 큰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를 보인다는 이타주의 이론을 주장하였다[18]. 신혜리 등(2014)도 가구주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저학력자이면서 비경제활동 가구주인 경우의 가구는 빈곤가구인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타주의 이론에 의거하여 사적 이전소득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9]. 김희삼(2008)은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사이에 대체성이 발생하며, 노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사적 이전은 이타적 동기가 지배적이고 하였다[19]. 강성호, 최옥금(2011)은 일반가구, 농가, 임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한국은 이타적 동기에 의해 사적 이전이 발생하고, 공적 이전과 자식들의 부양의식 약화가 사적 이전을 일정 부분 상쇄시킨다고 주장하였다[8]. 이와 대조적으로 황남희(2015)는 2000년, 2006년, 2009년 및 2011년 국민이전계정의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노후소득에서 공적 이전, 사적 이전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한 결과, 공적 이전이 2000년 37%에서 2011년 55%로 증가하였지만, 사적 이전 역시 2000년 16%에서 2011년 19%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적 이전의 발생 동기는 교환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20].

### 2. Public Private Transfer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로, 금현섭, 백승주(2014)의 연구[14]에 의하면, 공적연금과 사적 이전이 갖는 소득안정화 역할(소득불안정성 완화정도)은 매우 대조적인 양태를 보였는데,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노

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적 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 역할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경준(2013)의 연구[21]에 의하면, 가족·국가·공동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결합구조가 다름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소득안정성은 가구구성에 따라 달랐으며, 사적 이전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공적 이전은 전체 사회집단 대부분에서 소득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주요 경제적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은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함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권문희 등(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적 연금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22]. 방성아, 박희서(2017)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지출이 높을수록 노인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3].

이와 대조적으로 사적이전의 경우 대부분 자녀 혹은 친인척으로부터 이전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을 이전해주는 주체에 기인하는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음” 소득원천이 될 수 있다[14]. 따라서 사적 이전소득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라 후생증가와 심리적 부담감이 라는 주관적 후생감소가 병행된다는 점이 삶의 만족도에는 공적연금과 구별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III. Research Method

####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인학적 변수와 이전소득이며, 종속변수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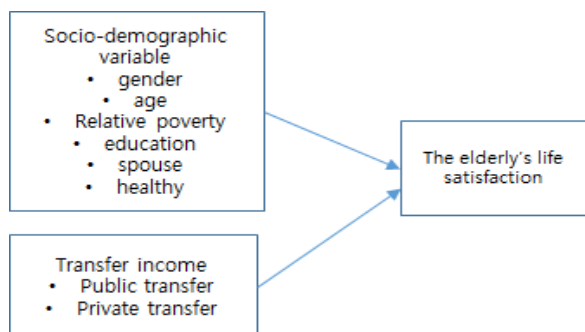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Analytical data

본 연구에서는 2016년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에는 지역적으로 제주도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전국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총

7,067가구가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51년생 이전에 출생한 노인(2016년 기준 만 65세이상) 4,994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Life Satisfaction Scale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11차년도 조사 8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건강만족도’, ‘가족의 수입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문항으로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α =.8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4. Analysis method

자료 분석은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해 SPSS 18.0을 이용해 다음의 분석을 하였다.

첫째, 분석대상의 성별, 연령대, 상대적 빈곤, 학력,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등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대상의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삶의 만족도 등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대상의 상대적 빈곤에 따른 공적 이전, 사적 이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넷째,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공적이전, 사적이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상대적 빈곤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Results of the study

#### 1.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연구대상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성 38.0%, 여성 62.0%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전기노인(65-74세) 45.0%, 후기노인(75세이상) 55.0%이었으며 평균연령은 75.8세로 분석되었다. 중위소득 60%기준으로 일반가구 노인 38.5%, 저소득가구 노인 61.5%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 41.8%, 무학 22.5%, 고등학교졸업 19.5%, 중학교졸업 16.2%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있음 58.0%, 배우자(미혼, 이혼, 별거 포함) 없음 42.0%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는 나쁨 37.9%, 보통 33.8%, 건강환편 22.7%, 매우나쁨 4.3%, 매우건강 1.3% 순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은 최소 0만원부터 최대 11,250만원, 평균 704.9만원, 사적 이전 소득은 최소 0만원부터 최대 7,897만원, 평균 471.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Table 1. Summary of Providing Staff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sons)	%
gender	men	1,900	38.0
	women	3,094	62.0
	N	4,994	100.0
age (m=75.8)	65-74	2,245	45.0
	more than 75	2,749	55.0
	N	4,994	100.0
relative poverty (median income 60%)	general-income	1,921	38.5
	low-incom	3,073	61.5
	N	4,994	100.0
education	non-education	1,123	22.5
	elementary	2,089	41.8
	middle	809	16.2
	over high	973	19.5
	N	4,994	100.0
spouse	none	2,099	42.0
	have	2,895	58.0
	N	4,994	100.0
health (m=2.79)	very bad	214	4.3
	bad	1,892	37.9
	usually	1,686	33.8
	healthy	1,135	22.7
	very healthy	67	1.3
	N	4,994	100.0
public transfer (unit-10,000 won)	min=0, max=11,250 m=704.9/s.d.=789.4		
private transfer (unit-10,000 won)	min=0, max=7,897 m=471.4/s.d.=551.8		
life satisfaction	min=1, max=5 m=3.37/s.d.=.514		

2. Transfer Income of General Elderly and low Income Elderly

상대적 빈곤에 따른 일반가구 노인과 저소득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일반가구 노인과 저소득가구 노인 사이에 공적 이전소득의 차이(t=19.1,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적 이전소득의 차이(t=10.1, p<.001)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	1								
2	.009	1							
3	.121**	.201**	1						
4	-.402**	-.195**	-.268**	1					
5	-.398**	-.199**	-.175**	.295**	1				
6	-.106**	-.189**	-.137**	.171**	.113**	1			
7	-.115**	-.098**	-.315**	.303**	.220**	.035*	1		
8	-.014	.081**	-.167**	.089**	.107**	-.061**	-.091**	1	
9	-.070**	-.075**	-.240**	.169**	.154**	.432**	.149**	.083**	1

\*p<.05, \*\*p<.01, \*\*\*p<.001

gender, 2. age, 3. relative poverty, 4. education, 5. spouse, 6. health, 7. public transfer, 8. private transfer, 9. life satisfaction

Table 2. Public transfer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	m (unit-10,000 won)	s.d.	t-value
public transfer	general	1,921	1,019.2	1141.4	19.1***
	low	3,073	508.5	313.1	
private transfer	general	1,921	587.7	774.6	10.1***
	low	3,073	398.7	325.7	

\*\*\*p<.001

한편, 상대적 빈곤에 따른 공사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평균소득(1,019.2만원)이 전체 평균소득(1,606.9만원)의 63.4%,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평균소득(587.7만원)이 전체 평균소득(907.2만원)의 64.8%를 차지하였다(Table 3.).

Table 3. Total of Public-Private transfer income

	N	min (unit-10,000 won)	max (unit-10,000 won)	m (unit-10,000 won)	s.d.
general	1,921	.00	11,563.0	1,606.9	1,287.2
low	3,073	2.00	2,863.0	907.2	393.9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공적 이전, 사적 이전소득,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로는 성별(r=-.070, p<.01), 연령대(r=-.075, p>.01), 상대적 빈곤(r=-.240, p<.01), 교육수준(r=.169, p<.01), 배우자 유무(r=.154, p<.01), 건강상태(r=.432, p<.01), 공적이전(r=.149, p<.01), 사적이전(r=.083, p<.01)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r=.432, p<.01)와 상대적 빈곤(r=-.240, p<.01)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4. Regression analysis result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수준별 지위(일반가구 노인, 저소득가구 노인)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성별( $B=.053, p<.001$ ), 연령대( $B=.030, p<.001$ ), 교육수준( $B=.050, p<.001$ ), 배우자유무( $B=.078, p<.001$ ), 건강상태( $B=.425, p<.001$ ), 공적 이전( $B=.110, p<.001$ ), 사적 이전( $B=.100, p<.001$ ) 등의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여성노인일수록, 연령대가 후기노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이 많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공적 이전 및 사적 이전 변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2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미애, 김정현(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7]. 즉, 공적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과 사적연금과 같은 사적 이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노인들의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경혜, 이상혁(2015)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있다[12]. 즉, 이들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적 이전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공적 이전 소득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B	B	t
(constant)	2.300		41.384***
gender <sup>1)</sup>	.056	.053	3.505***
age <sup>2)</sup>	.031	.030	2.228*
education	.020	.050	3.290**
spouse <sup>3)</sup>	.081	.078	5.287***
health	.253	.425	31.841***
public transfer	.001	.110	7.859***
private transfer	.001	.100	7.539***
F=191.338***			
R2=.222			

\*p<.05, \*\*p<.01, \*\*\*p<.001

1) gender→men=0, women=1, 2) age→65-74 ages=0, more than 75 ages=1, 3) spouse→none=0, have=1

중위소득을 반영한 노인의 상대적 빈곤에 따른 일반가구 노인과 저소득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첫째, 일반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 $B=.376, p<.001$ ), 공적 이전소득( $B=.127, p<.001$ ), 교육수준( $B=.082, p<.01$ ), 배우자 유무 ( $B=.057, p<.05$ )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공적 이전이 많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변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18.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둘째, 저소득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 $B=.439, p<.001$ ), 사적 이전소득( $B=.150, p<.001$ ), 배우자 유무 ( $B=.086, p<.001$ ), 성별( $B=.054, p<.01$ ), 연령대( $B=.053, p<.01$ )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일수록, 연령대가 후기노인 일수록,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사적 이전이 많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변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21.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금현섭, 백승주(2014)의 연구와 비교적 일치하고 있다[14]. 즉, 공적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노인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이 사적이전의 소득안정화 효과를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저소득노인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주로 자녀로부터 받은 낮은 수준의 이전소득 자체가 큰 변동이 없는 정체된 소득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by Income Level

	general-income			low-incom		
	B	B	t	B	B	t
(constant)	2.613		31.5***	2.225		29.3***
gender	.044	.047	1.8	.060	.054	2.8**
age	.014	.015	.6	.056	.053	3.0**
education	.027	.082	3.2**	-.004	-.008	-.4
spouse	.059	.057	2.3*	.089	.086	4.4***
health	.204	.376	16.7***	.268	.439	26.1***
public transfer	.001	.127	5.3***	.001	-.003	-.1
private transfer	.001	.029	1.315	.000	.150	8.5***
F=56.180***				F=114.854***		
R2=.180				R2=.215		

\*p<.05, \*\*p<.01, \*\*\*p<.001

1) gender→men=0, women=1, 2) age→65-74 ages=0, more than 75 ages=1, 3) spouse→none=0, have=1

삶의 만족도와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공적 이전소득은 최소 0만원부터 최대 11,250만원, 평균 704.9만원, 사적 이전소득은 최소 0만원부터 최대 7,897만원, 평균 471.4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보통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에 따른 공사 이전소득의 합은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전체 평균소득 1,606.9만원,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전체 평균소득 907.2만원으로 일반가구 노인이 평균 699.7만원 더 많게 분석되었다.

셋째, 중위소득을 반영한 소득수준별 지위(일반가구 노인, 저소득가구 노인)요인을 제외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성별( $B=.053, p<.001$ ), 연령대( $B=.030, p<.001$ ), 교육수준( $B=.050, p<.001$ ), 배우자 유무( $B=.078, p<.001$ ), 건강상태( $B=.425, p<.001$ ), 공적 이전( $B=.110, p<.001$ ), 사적 이전( $B=.100, p<.001$ ) 등의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넷째, 일반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 $B=.376, p<.001$ ), 공적 이전소득( $B=.127, p<.001$ ), 교육수준( $B=.082, p<.01$ ), 배우자 유무( $B=.057, p<.05$ )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건강상태( $B=.439, p<.001$ ), 사적 이전소득( $B=.150, p<.001$ ), 배우자 유무( $B=.086, p<.001$ ), 성별( $B=.054, p<.01$ ), 연령대( $B=.053, p<.01$ )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음”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홍경준(2003)의 선행연구[21]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적이전 소득은 저소득계층에게 소득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노인의 공적 이전 평균소득은 704.9만원, 사적 이전 평균소득은 471.4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9.9%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 노인들의 평균수명 증가와 맞물려 노동은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자기소득비중이 줄어들고 공적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이전소득은 월 평균 97.9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은퇴 후 적절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적이전을 확대하는 노후소득보장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노인 가구는 일반가구의 노인과 비교해 공사이전이 평균 699.7만원 더 낮게 분석되었다. 저소득노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58.3만원 정도의 공사 이전소득으로 힘겨운 생활을 지탱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비합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보완을 통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제적 안정화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대안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노인 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불안정한 소득이전이고 다소 불편한 소득원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노인 가구는 사적이전이 중요한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에게 이전소득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들은 대체로 유사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적 이전소득이 도중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9]. 따라서 저소득노인 가구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이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수준별 지위를 분리하여 일반가구 노인과 저소득가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이전, 사적 이전의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시도해 보지 않은 본 연구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노인 가구의 경우 사적 이전의 영향력이 노인의 삶에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규명한 분석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의 공적이전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 이전의 소득원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즉, 공적이전 소득 중 연금의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에 대한 분석과 연금수급 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적 이전의 경우도 노인가구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고려도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즉, 공적이전 소득의 효과에 따른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의 감소 등과 같은 구축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변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후속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 REFERENCES

- [1] J. M. Jin, S. Y. Kim, and K. J. Moon, "The Relation between the Public Transfer and the Private Transfer for the Elderly in Busan: Focused on Income Transfer and Service Transfer," *Social Welfare Policy*, Vol. 43, No 4, pp.

- 169-192, 2016.
- [2] J. H. Kim, W. M. Kang, and D. M. Yeum, "An Study on Anti-Poverty & Income Inequality Effectiveness of Income Transfer: Focusing on the Single & Spousal Elderly Households," *Social Welfare Policy*, Vol. 42, No 1, pp. 135-159, 2015.
- [3] S. W. Bae, J. A. Son, and S. M. Park.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eholds in poverty and identifying factors contributing to escape from poverty statu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42, pp. 291-317, 2008.
- [4] S. Y. Kim, and Kang Hoon Le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verty-Mitigating Effects Originated from Transfer Income Systems among Single-Elderly-Household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4, pp. 1559-1575, 2009.
- [5]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Surve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2009.
- [6] K. H. Chung, 2014 Survey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 Policy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 [7] M. A. Chun, and J. H. Kim, "The Effects of its Proportions of Different Sources of Old Age Income on Older People'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 1, pp. 283-303, 2017.
- [8] S. H. Kang, "The Change of Supporting Mindset, Crowding Out Effect and Income Support,"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Policy*, Vol. 13, No. 1, pp. 113-144, 2011.
- [9] R. S. Hye, S. H. Nam, and D. M. Lee, "A Study on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f 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40, No. 1, pp. 117-138, 2014.
- [10] S. H. Seok,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on the Economic Life and Satisfaction of Old Age," *Pension Forum*, Vol. 43, pp. 4-9, 2011.
- [11] E. G. Yeo, M. G. Kim, J. I. Kwon, O. G. Choi, and J. Y. Choi,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Poverty and the Guarantee of Income of the Elderl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 [12] K. H. Won, and S. H. Lee, "Effects of the Elderly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on life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6, pp. 3787-3796, 2015.
-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Korea Welfare Study The 11(2016), 2016.
- [14] H. S. Kim, and S. J. Back, "Public Pension, Private Transfers and Subjective Well-Being: A Focus on the Role of Income Instability Reduc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2, No. 1, pp. 145-175, 2014.
- [15] Bowling, A., Banister, D., Sutton, S., Evans, O., and Windsor, J., "A multidimensional model of the quality of life in older age," *Aging & Mental Health*, Vol. 6, pp. 355-371, 2002.
- [16] D. B Kim, E. Y. Park, and S. U. Kim, "The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ople by the Asset Types: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Economic Activit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 36, No. 6, pp. 471-494, 2009.
- [17] Cox, D., Eser, Z., and Jimenez, E.,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over the Life-Cycle: an Analytical Framework and Evidence for Peru,"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5, pp. 57-80, 1998.
- [18] H. M. Kang, "A Study on Private and Public Income Transfers of Elderly Households : Focusing on Subsidies from their Children," University of Seoul: thesis, unpublished, 2017.
- [19] H. S. Kim,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 30, No. 1, pp. 71-130, 2008.
- [20] N. H. Hwang, "Population aging and the role of public-private transfer," *Health-Welfare Issue & Focus*, Vol. 287, 2015.
- [21] K. Z. Hong, "Family, State, and Community Sources of Income Stability," *Korean Journal Social Welfare*, Vol. 54, pp. 321-345, 2003.
- [22] M. H. Kwon, J. H. Lee, and K. H. Kwon,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public pensio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The 3rd National Elderly Social Security Protection Panel Conference Proceedings*, pp. 33-59, 2011.
- [23] S. A. Bang, and H. S. Park,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s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2, No. 12, pp. 163-170.

### Authors



Hyoung-Ha Lee received the M.S. and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from Dongshin University, Korea, in 2000, and 2004, respectively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in 2004. He is interested in Poverty problems, Multicultural migration and Baby parent generation.